KWDI
해외통신

2023년 7월 (2023.7.1~7.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페인 SPAIN

성평등 할당제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지역학과·정치학과 강사

- 2023년 3월, 스페인 정부는 일정 직급에서 남녀 비율을 각 최소 40%로 채울 것을 의무화하는 성평등 할당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이 명시하는 성평등 할당제는 정부와 민간기업을 포괄한다는 점이 특징으로, 본 원고에서는 법안 내용과 더불어 스페인의 관련 현황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 우선 공공기관부터 살펴보면, 해당 법안은 의회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1985년 제정되고 이후 몇 차례 개정된 선거법(Organic Law of 5/1985, of the General Electoral Regime) 제44조에서 하원, 지방 선거 등 선거 후보 명부를 작성할 때 남녀 비율은 각 최소 40%가 되어야 한다고 이미 명시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 정부에서 발표한 법안은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성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 실제로 스페인 정부는 꾸준히 여성 대표성 증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고 성과를 보여왔다. 현재 스페인 의회는 하원(Congress of Deputies)과 상원(Senate)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 IPU)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하원에서 남성 의원은 201명, 여성 의원은 148명으로 여성 의원 비율은 42.4%다. 상원에서 남성 의원은 161명, 여성 의원은 104명으로 그 비율이 39.3%로 나타났다.

- 본 법안은 내각 각료 임명 절차에서도 성평등 할당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정부를 이끌 정당은 남녀 각 최소 40%를 고려하여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2018년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총리는 내각 구성 당시 장관 17명 중 11명을 여성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는 스페인 역사상 내각 내 여성 각료 수가 가장 많은 파격 인사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해 스페인 내각에서 부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재무부 장관 등 내각 관료 23명 중 14명이 여성이다. 비율로 환산하면 61%로서, 현 내각은 오히려 남성 각료를 추가하여 남녀 각 최소 40%라는 조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 ESE Business School (2023.3.2.) "Spain makes progress toward female board representation, but will it make the deadline?", https://www.iese.edu/insight/articles/spain-ibex35-female-board-representation-2022/ (접속일: 2023.7.22.)
-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n.d.) "Gender Quotas Database", https://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103/35 (접속일: 2023.7.22.)
- McKinsey & Company (2023.3.17.) "Women Matter, Spain: Women are still far from top corporate-leadership positions", https://www.mckinsey.com/featured-insights/diversity-and-inclusion/women-matter-spain-women-are-still-far-from-top-corporate-leadership-positions (접속일: 2023.7.22.)
- The Guardian (2023.3.7.) "Spain approves draft law for gender quotas in business and politic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mar/07/spain-approves-draft-law-gender-quotas-business-politics (접속일: 2023.7.22.)

- 민간분야의 경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 증시 IBEX에 상장한 기업들은 2024년 7월 1일까지 이사회에서 대표성이 낮은 성별의 비율을 최소 40%까지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 내 남성 임원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여성 임원을 추가로 임명해야 한다. 그리고 피고용주 250명 이상이면서 연 매출 5천만 유로 이상인 비상장 기업들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성평등 할당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 스페인 IBEX 35대 기업(Ibex-35) 중 18개 기업은 이미 여성 임원 비율 40%를 달성한 상태다. 그리고 상장 기업 전체를 고려하면 여성 임원 비율은 37.5%로, 40%에 가까운 수치다. 법적으로 성별 평등 할당제를 제도화하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스페인의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스페인 정부가 이번 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로는 작년 6월, 유럽연합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발표한 지침(Directive)을 언급할 수 있다. 본 지침은 회원국들이 2026년까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 내 기업들은 2026년 중반까지 비상임이사회에서 여성 임원 비율 최소 40%,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포함하면 여성 임원 비율 최소 33%를 달성해야 한다.

-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에서 45개 포르투갈 및 스페인 기업들을 조사한 'Women Matter 2023'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 내 여러 임원직을 통합했을 때 여성 임원 비율은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 임원(N-1) 비율은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와 같이 더 높은 직급체계로 올라갈수록 여성 임원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

- 여기에는 일·가정 양립에 있어 보이지 않지만 여성이 겪게 되는 여러 유형의 압박이나 고충, 여성을 경영 최전선에 세우기보다는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임명하는 분위기도 지적되었다. 또한 일하는 여성들이 회사가 본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 역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조사 대상 중 선임 매니저에서 최고경영자(CEO)에 이르는 여성 임원들의 39%는 여전히 집에서 가사 노동과 육아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전담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남성 임원 중 해당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에 그쳤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해당 법안을 발표하면서, 나디아 칼비뇨(Nadia Calviño) 수석부총리(First Deputy Prime Minister) 겸 경제 장관(Minister of Economy and Digitalization)은 성평등 할당제 법안이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초안 통과까지 오래 걸렸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법안은 특정 성별에만 우선권이나 혜택을 제공하려고 수립된 것이 아니라, 공공 및 민간분야 내 주요 직급이 어느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앞으로 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해당 자료에서는 최고경영자(CEO)를 기준으로 하위 직급을 N-1, N-2, N-3로 표기함.

영국 UNITED KINGDOM

완경기 여성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지원 제도 도입

임 다 혜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정부는 2023년 4월 1일자로 완경기 증상을 겪는 여성이 해당 증상의 주요 치료법인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을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당 제도는 여성들이 19.3 파운드(한화 약 31,666원)로 1년 치 처방전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약 처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완경기 여성들은 처방약 비용을 수백 파운드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제도는 약 40만 명의 여성들이 매달 주치의를 찾아가 처방전을 받고, 처방약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과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제도는 2022년 8월 발표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중점사안 중 하나인 완경기 여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원 증대와 낙인 축소 목표를 배경으로 시행되었고, 영국 정부는 여성 건강거점(Women's Health Hub)에 재원을 조달하여 향후 2년간 해당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 방안을 고심해야 할 한계점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완경기 여성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시행 내용

- 앞서 논의한대로, 해당 제도는 2022년 8월 영국정부에서 발표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중점 사안인 완경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완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비롯하여 완경에 대한 정보와 비용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졌다. 완경을 필수의료로 지정한 것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서 안면홍조, 식은땀, 두통, 관절통, 기분 변화, 질 건조증 등 완경 및 완경 전후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골다공증과 심장 질환을 비롯한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의 위험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제도는 보건부(Department for Health and Social Care)의 주도하에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와 여성건강거점(Women's Health Hub)이 협력하여 시행한다.

- 2023년 4월 1일부터 국민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에 가입한 완경기 여성은 19.3 파운드(한화 약 31,666원)를 지불하고 온라인 또는 약국에서 처방전선불증명서(Prescription Prepayment Certificate, PPC)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비용은 처방전 2회분의 비용이며, 여성들은 12개월간 횟수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방문하는 약국에 등록이 되어, 여성들이 매달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을 처방 받을 때마다 주치의를 찾아가야 하는 수고를 덜고, 매달 처방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에서 지원되는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의 종류는 복용약, 패치, 그리고 국소 치료제까지 다양하며,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홈페이지에서 지원약물 명단을 확인 할 수 있다. 마리 콜필드(Marie Caulfield) 여성건강전략 장관(Minister of Women's Health Strategy)이 완경기 여성이 자신에게 맞는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약물을 찾으려면 여러 종류의 약물을 시도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듯이, 해당 제도는 완경기 여성들이 비용 부담 없이 자신에게 맞는 약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참고자료

- BBC (2023.4.1), "Hormone replacement therapy and menopause: What you need to know about HRT", https://www.bbc.co.uk/news/health-62336456 (접속일: 2023.07.20.)
- GOV.UK (2023.3.8), "£25 million for women's health hub expansion", https://www.gov.uk/government/news/25-million-for-womens-health-hub-expansion (접속일: 2023.7.22.)
- GOV.UK (2023.3.17),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experiencing menopause symptoms to get cheaper HRT", https://www.gov.uk/government/news/hundreds-of-thousands-of-women-experiencing-menopause-symptoms-to-get-cheaper-hormone-replacement-therapy (접속일: 2023.7.22.)
- GOV.UK (2023.4.1.), "New scheme for cheaper hormone replacement therapy launches", https://www.gov.uk/government/news/new-scheme-for-cheaper-hormone-replacement-therapy-launches (접속일: 2023.7.20.).
- GOV.UK (2023.4.4.), "Over 37,700 women access cheaper hormone replacement therapy scheme", https://www.gov.uk/government/news/over-37700-women-access-cheaper-hormone-replacement-therapy-scheme (접속일: 2023.7.20.).
- The Pharmaceutical Journal (2023.3.18), "Prepayment scheme for HRT to start in April 2023", https://pharmaceutical-journal.com/article/news/prepayment-scheme-for-hrt-to-start-in-april-2023 (접속일: 2023.7.20.)

- 완경기 여성을 위한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비용 접근성을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해당 제도 및 완경에 관한 폭 넓은 정보를 전달하고자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여성건강거점(Women's Health Hub)이 협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위한 완경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보건부는 2023년 세계 여성의 날, 여성건강거점(Women's Health Hub)이 지역사회 여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경 건강, 피임, 골반 통증, 완경 관리 등 필수적인 여성 건강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500만 파운드(한화 약 415억 9천만 원)를 지원하였다. 이는 2년간 여성들이 완경 관리나 해당 제도와 같은 혜택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도로 인해 국민건강서비스(NHS)가 직면할 수 있는 여러 부담을 덜게 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정보 부족 및 약물 공급에 관한 한계점

- 해당 제도는 완경 관리에 대한 접근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점들이 있다. 호르몬대체요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지원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당 제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정보의 수준이 보건의료 전문가별로 상이하다. 특히, 주치의의 경우,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가이드라인 숙지가 부족하여 완경기 여성들이 보험제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국민건강서비스(NHS)와 여성건강거점(Women's Health Hub)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와 완경기 여성 당사자들이 해당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들이 횟수에 제한 없이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어 비용 접근성은 낮아졌지만, 높아진 수요에 상응하는 공급량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이다. 영국 정부는 해당 제도를 시행하기 앞서 다년간 공급업체들과 소통했으나,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